

## 종계업계 대응방안

# 역경극복을 닭 환우의 섭리에서 얻는 지혜를...

홍 광 표 풍전부회장 대표

가 공된 닭고기 제품이 되기까지 이에 연관된 부속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비교될 수 없으리 만치 대단히 많다. 우선 가공공장을 비롯하여 도계장, 닭 운송, 사료공장, 부화장, 종계장, G·P·S농장, 초생추 운송 외에도 더 있다.

사업경영상 매사를 꼭 알아야만 하고, 알고 있어야 함이 CEO의 자격요건이라면, 관련업체 CEO들은 이 광범위한 닭고기 관련 지식을 소화하고 적응하는데 투자해야 할 부담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3차까지 모두가 연관된 산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란 개념으로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부분별 전문성이 필요하고 방만한 형태의 사업 규모를 외부 협력업체로 대치,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아웃소싱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간의 경쟁이 개별 업체간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아웃소싱으로 분업화한 업체간(예 : 동일업체내 종계장간)경쟁으로 바뀌어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계업계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처하면서 최소한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역사를 알고, 과거를 더듬어 보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에 제기될 문제를 해결하려 함이다. 1997년 말 IMF관리 체제 전-후를 상기해보자. IMF관리 체제 전 달러 당 환율이 900원에서 체제 후 1,800원 이상 급등하여 옥수수 수입 톤당 단가가 137\$에서 2배 이상인 270\$로 폭등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었나? 서로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대를 이겨왔다. 이는 마치 닭들이 최악의 상황에 갔을때 털갈이(환우(換羽))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에서 닭의 털갈이는



닭의 연령, 일조시간, 외부기후 조건과, 영양결핍 등 약조건 극복을 위한 자연적 순응이기 때문이다.

즉, 닭고기 생산의 기본요소 중 사료와 연료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힘든 요소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병아리 생산비, 노동력 등 기타 요소들은 서로간의 이해와 고통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지금의 역경극복을 닭 환우의 섭리에서 얻는 지혜를 갖는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

“

우리 모두 지금의 역경극복을 닭 환우의 섭리에서 얻는 지혜를 갖는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채란업계 대응방안

# 사료업계, 생산자들과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김 종 선 광주전남지회장

지난해 사료가격이 6% 인상되었으며, 금년에도 이미 2차례나 인상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는 사료가격을 보고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IMF, 금년 초의 HPAI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대 사건으로 앞으로 어떻게 업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이다.

지난해 필자는 전 양계업계를 대변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사료 원료가격의 상승요인이 상쇄되어 그동안 올랐던 사료가격을

